

“가람에 담긴 민족 정신사”

홍윤식교수 '한국의 가람'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인 홍윤식교수가 불교문화의 총체적 이해의 바탕이 될 한국사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연구서 <한국의 가람>(민족사)을 발간했다.

“각각의 불교문화에 대한 각론적 연구와 병행해 이들의 종합적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가람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는 홍교수는 이 책에서 기존의 사원 연구 방식인 단순한 건축양식 위주의 미술사적인 고찰이 아닌 가람자체에 담긴 신앙적인 의미와 불교사상,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가람의 성격과 그 변천과정을 규명하고 있다.

이 책은 국내 16개 가람의 형성배경을 불교 신앙적 측면, 당시의 정치, 사회적 측면, 그리고 비보(禱補)사상의 영향 등을 통해 고찰한다. 또 현존하는 사적기, 연기설화 등을 통해 그를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불교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홍교수는 “불교문화의 근원적 발생은 복잡한 중생계의 인연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것이며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이라 말한다. 또 “지금 불교미술학계에서 현재의 문화이념에 대응하여 분류한 불교문화 불교미술 불교음악 불교건축 불교공예 등의 각론적 인식은 비록 그 분류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각 분야의 문화를 각기 따로 따로 이해하려는 데서 불교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책에서 다른 ‘사원을 통한 불교문화의 종합적 상관관계 연구’가 불교문화의 본질적 연구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홍교수는 따라서 이 책은 한국사원의 정체성을 규명하는데 기초적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홍교수는 백제의 고찰인 미륵사와 금산사를 그 건립배경이 된 미륵사상과 역사적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신라 화엄신앙의 중심인 부석사를 통해서 당시의 화엄신앙과 정토종의 모습을 밝히고 있다. 건봉사는 서로 다른 신앙양식을 가지는 4지역으로 구분해 신라말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신앙의 변천을 보여준다.

송광사는 건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천과정을 고찰 분석하여 승보종찰로서의 성격을, 마곡사는 교화 수행의 2대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 책은 가람의 형성배경과 그 현재적 의미, 가람의 성격과 형태의 변화를 궁극적으로 각 시대별 요인에 부응해 나타난 것이며 따라서 불교문화에 대한 접근은 사원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바탕으로 해야한다는 홍교수의 평소 지론이 그대로 담겨있다.

홍윤식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앞으로 가람의 모든 신앙의식과 생활양식까지 포함하는 연구를 거듭해 앞으로 ‘한국불교문화사론’으로 종합, 정리해 낼 계획이다.



신앙·사회변천 등 종합고찰 새로운 시각의 사원 연구서

중국선불교 답사기 ‘첫 권’

이은운씨 '밤그릇이나 씻어라'



문: 전에 여기에 왜 본 적이 있는가?
답: 예, 왔었습니다.
문: 차나 마셔라! (다른 승려에게) 전에 여기에 왜 본 적이 있는가?
답: 아니요, 처음입니다.
문: 차나 마셔라!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원주가 의아해 묻는다)
문: 왜 왜 본 사람이 처음 왔다는 사람이나 다같이 차나 마시라고 하시니까?
답: 원주!
문: 예.
답: 차나 마셔라!
일상적이면서 재치있고 함축적인 선문답으로 친화 선림을 제패한 조주종심선사(778~897)의 ‘끼다거(喫茶去)’ 화두는 오늘날 우리 나라 선림에서도 많이 드는 화두 가운데 하나다. 조주가 세 사람 모두에게 차나 마시라고 한 것은 자기자신으로 돌아가라는 내면자중(內而自證)의 요구다. 견성이니 성불이니 하는 공연한 망상에 빠져 관념적 유희를 일삼지 말고 조용히 내면을 성찰하라는 가르침이 ‘끼다거’에 담겨있다.

중앙일보 이은운 종교전문기자가 파격적인 발상 전환을 통해 많은 수행자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었던 유명 선사들의 행화도량 86곳을 96년 3월부터 3개월간 현장답사했다. 답사후 선사들이 남긴 화두를 다양하고 재미있는 일화



중국 행화도량 86곳 답사 선사들의 화두 쉽게 풀이

와 함께 흥미롭게 풀이한 책이 바로 <밤그릇이나 씻어라>(자작나무)다.

총 4권으로 기획된 ‘중국선불교답사기’ 가운데 첫권인 이 책은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와 불법을 전한 최초의 선종사찰인 송산 소림사를 비롯해 조주 백림선사, 진주 임제선사 등 남북 하남성 내의 주요 선종사찰과 유적, 그와 관련된 거물 선사들을 다루고 있다.

이제는 “21세기 이후를 이끌어갈 인류 보편 사상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선사상에 비중을 두고, 구체적으로 답사한 사찰에 주석했던 선사들의 선사상이 응축되어 있는 중요 공안을 나름대로 재조명했다. 그리고 양자강 유역 내륙지방에 살고있는 민중들의 삶의 풍경도 간간히 담았다”고 말한다.

이 책에는 나체의 승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도 태연히 목욕을 함으로써 축천후후를 감탄시킨 송산해안선사, 대나무에 벽돌조각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이은자 기자

법화경 1·2

이연숙 편저

환제의 책



누구나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 찾게 되는 책 한권이 있다. <법화경>은 아마도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책 중의 하나일 것이다.

시공사가 펴낸 시공불교경전시리즈 <법화경> 1·2권은 어려운 한문

“한문어투 탈피 한글세대 위해 번역”

어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기존의 한문을 극복, 새롭게 현대적인 감각의 한글로 쉽게 풀어냈다. 여기에 본문 내용과 관련된 변상도를 넣어서 그림을 통해서도 경전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또한 제1품 가르침을 위한 서광 제2품 방편과 참모습과 같이 <법화경> 28품 하나하나마다 한글제목 붙였다. <법화경>은 인도에 태동하고 있던 재가신도들을 중심

으로 전개된 대승불교 운동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경전이다. 따라서 이 경의 사상과 내용은 다분히 대승불교적이다. 특히 이 경전의 주효들은 ‘회삼귀일(會三歸一)’과 ‘영원불(永遠佛)’ 사상이다. 앞부분에서는 일승(一乘)의 교리를 여러각도에서 조명하고 있으며, 뒷부분에서는 다른 경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겁을 강조하고 있다. (시공사 각 1만2천원)

‘佛名사전’ 나왔다

1천4백여 거사·보살이름 의미 해설

불자들에게 있어 불명(佛名)은 자성(自性)을 일깨우는 도구다. 불자라면 누구나 생사의 끈을 끊고 불생불멸의 자유를 구하고자 심신을 갈고 닦아 5계를 신수봉행하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자성을 일깨우는 상징인 불명(佛名)을 수지해야 한다.

故 성훈스님이 생전에 세인들의 불심고양을 위해 기획해 7년만에 선을

보인 <불명사전>(우리출판사 판)은 불자들에게 불명에 담긴 깊은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진하도록 이끌어 준다.

이 책은 제1부 수계에서 수계식과 불명짓는법 등을 안내하고 제2부에서는 거사불명 700개를, 제3부에서는 보살불명 720개에 대해 그 뜻을 다양하고 자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보살불명인 반야

심(般若心)은 불도의 근본이며, 일체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본연의 자성정성을 깨닫는 지혜를 성취하려는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

자신만을 위한 명성과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을 항상 깊이 새겨서 일체중생을 이악케 하는 지혜로써 중생의 근기에 맞는 방편으로 불도를 널리 펴라는 뜻의 지인(智仁)은 거사들의 불명으로 많이 쓰인다.

이 책은 보살과 거사불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불명짓는법 등에 대해서까지 소개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불명사전>이다.

새로운 책

▲선의 마음=참선을 통해 얻을 이긴 저자 송지호씨가 초보자들도 쉽게 참선을 배우고 익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선하는 법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수행의 필요성에서부터 실제 수행방법 교리적 근거 화두에 이르기까지 참선법을 분석하고 있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다.(대흥기획 5천원)

▲삼의 문턱에서=선화가로 유명한 성훈스님의 그림이 곳곳에 곁들여져 글의 맛을 더하는 이 책은 40여년동안 교직에 몸



담아 온 불자 이강희씨가 예순이 되도록 살아온 인생영정을 담담한 필체로 표현한 에세이. ‘삼의 향기를 더하는 지혜’ ‘서로 따스한 마음이 되어’ ‘어머니라는 이름의 강’ ‘만남이라는 인연 속에서’ ‘모래밭에서 캐낸 진주들’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조각의 발견=백제 관음, 법주사 미륵대불, 부석사 무량수전 소조불 등의 불상을 통해 한국 조각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 책은 누구나 쉽게 조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섯가지 테마를 통해 현

대적인 감각과 민족적 특성이 드러난 동·서양 근대조각도 살펴보고 있다. 저자 조은정씨는 책을 통해 전통조각의 특성을 어떻게 현대에 되살릴 수 있을 지도 고민한다.

(대원사 7천5백원)

▲쉽게 읽는 중국사상=공자를 시조로 2천년동안 절대적인 권위를 지녔던 유가의 사상이 전통과 혁신의 맞물림 속에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담았다. 저자 안길환씨는 전통의 테두리를 뛰어 넘으려는 당대 사상가들의 치열한 학문세계를 그들의 삶과 더불어 단적으로 보여 준다. (책만드는집 7천원)

‘속고승전’ 등 한글대장경 10권 ‘햇빛’

동국대경이 한글대장경 10권을 새로 발간했다. 당나라 도선스님이 찬술한 고승전기 <속고승전> 1, 2권을 비롯해 균여(均如)스님의 <석화엄교본기원통초> 1, <계소재경 외>, <삼법도론 외>, <대승이취육바라밀경 외>, <신화엄경론> 1, 2, <대승이비달마잡집론>, <대당대자사상장법사론 외> 등이다.

이 가운데 <석화엄교본기원통초>는 현수 법장(賢首法藏)의 <화엄경오교장>에 의거해 서술된 책으로 총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석화엄교본기원통초> 10권 끝에는 전진사 혁연정이 찬술한 <균여전>이 부록으로 실려 있는데 이 <균여전>은 균여스님이 지은 향가 11수가 실려 있어 국문학적으로도 귀중한 연구자료다.

◇금주의 베스트북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림
2	불교를 읽면 평생이 즐겁다	윤 청 광	지식산업사
3	한국사찰음식	김 연 식	우리출판사
4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 현 준	효림
5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혜 원	가람기획
6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명의 지혜	유 필 화	한 언
7	암자로 가는 길	정 찬 주	좋은 날
8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	류 시 화	열림원
9	천수다라니 공덕과 의미	전 재 성	이 바 지
10	그까지 살았으면 어때	곽 립	여시아론

구입문의:(02)737-0695

성야출판 TEL:778-6826/7 FAX:778-6828



“어디가 참부처님이 계시는 곳입니까?”



중국의 작은 부처

양산

양산(仰山)

위산의 법제자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손가락 두 개를 자르고 출가했다. ‘마조선사의 많은 선 지식을 두루 만나 법을 구하였고, 탐원을 만나 혜충국사의 원상법문을 전해 받았는데, 한 번 보고 단박에 깨쳐 그 자리에서 태워 버렸다. 스승 위산에게 머물면서 진리를 깨친 그는 중국의 소식가로 불릴 만큼 출중하였으며, 후에 스승과 더불어 중국 오가종(五家宗)의 하나인 위양종의 문을 열었다.

“중국의 작은 부처 양산, 선(禪)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선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선 ‘그저 지켜 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터득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가지런한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대인에게 깨달음을 주는 ‘중국의 작은 부처 양산’의 진수를 경험해 보자! 그저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이미 당신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작은 부처, 깨달은 자로 존재할 것이다.

오소 리즈니쉬 경의 / 김희정 옮김 / 값 6,500원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과의 벼락같은 목소리가 있다!

살아있는 선

오소 리즈니쉬 경의 / 류원정 옮김 / 값 9,000원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인도의 스승들은 불교의 정수를 모아 42권의 시로 구성하였다. 오소 리즈니쉬는 특유의 페이스로 넘치는 우화를 곁들여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42장경

오소 리즈니쉬 지음 / 황광우·이경옥 옮김 / 전2권 / 각권 값 7,500원